

고유가 시대, '절약형 신호등' 대통령상 영예

학생 193명, 지도교사 13명, 단체 3개교 시상

제 21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김선욱(인천 관교중 1년) 학생이 출품작 「절약형 신호등」으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 올해의 학생발명왕으로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에는 「편리한 다기능 펌틀」을 출품한 조정제(전남 광양제철초등 5년) 학생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에는 「무게중심을 이용한 실리콘 안전압정」을 출품한 이동은(경기 낙성고 2년) 학생이 차지했다.

또한, 이날 함께 열린 제10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에서 유동근(서울 염광여자정보교육고) 교사는 금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이종환(서울 신길초) 교사와 장계영(경북 도봉초) 교사는 은상(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박준영(서울 삼선중) 교사 외 3명은 동상(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학생들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학생발명 축제로, 올해가 21회째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3월 3일부터 작품접수를 시작하여 서류심사, 1·2차 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316건(학생 301건, 교사 15건)을 선정, 지난 7월 30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시상식을 갖고, 학생 193명, 지도교사 13명, 단체 3개교를 포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정식 특허청장, 허진규 한국발명진흥회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 김양오 대한변리사회부회장, 박범익 한국학교발명협회국장, 김성희 한국특허정보원본부장, 김두선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총재, 박준형 학생발명홍보대사(개그맨)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상 수상으로 올해의 학생발명왕이 된 김선욱 학생은 “외할아버지께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잘 보지 못한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쳐 돌아가시면서 잘 보이는 신호등을 생각하다가 에너지 절약형 신호등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요즘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에너지 절약분위기에 내가 만든 절약형 신호등이 실제 사용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에 매우 기쁘다”면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에서 발명캠프를 개최하였고, 금상 이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일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태평양홀 1전시실에서는 학생발명품과 교원발명품 316점이 전시되었으며, 발명체험관, 테마전시관, 특별전시, 공연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발명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10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도 함께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약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